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이전

상담실·자조모임 참여공간 확대
공유주방·미니카페 등 안심공간
고립 청년 맞춤 통합서비스 제공
“심층상담 등으로 사회복귀 지원”

광주광역시가 고립 청년과 그 가족의 회복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광주광역시는 17일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센터 운영 성과, 비전 발표, 새 공간 소개, 당사자 축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소,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3월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새 공간은 상담실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자조모임과 사회관계 회복 프로

그램을 위한 참여공간도 2개로 확대했다.

특히 당사자가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안심공간’에 공유주방과 미니카페를 마련, 주위의 간섭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편안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발굴부터 사회 복귀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72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571명에게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인별 전문상담 △자조

모임 ‘아무튼 모여’ △생활습관 개선 ‘원, 원, 원, 해요!’ △대인관계 활동 ‘명랑한 은둔자 모임’ △사회참여 활동 ‘아무튼 출근’ 등이다.

센터는 고립 청년과 가족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벤치마킹 방문이 55차례에 이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고립 청년들에게는 자신만의 속도로 사회와 연결하도록 돕는 마음쉼터 역할을 함으로써 은둔 탈출을 원하는 당사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개인별 회복 단계에 맞춘 심층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실천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세상과 멀어진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복의 장이자, 가족이 함께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며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촘촘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소방,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7일 본부 회의실에서 고영국 본부장과 5개 자치구 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비상대응태세 확립에 돌입했다.

광주소방은 우선 기상특보 발령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26곳을 사

전 점검하고, 현지 적응 훈련 실시, 취약 지역 예방 순찰 강화 등에 나선다.

또 폭염에 따른 은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생리식염수 등 응급처치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펌플런스 27대를 예비 출동대로 지정해 구급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119신고 증가에 대비해 상황실 비상접수대를 기존 13대에서 35대로 확대 운영하고, 비긴급 신고 자체 홍보,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상아 기자**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추천 이벤트 진행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잡고 이달 8월 31일까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수수료 정책 시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서포터즈와 전남도 민도 추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1+1)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 규모는 총 1081명, 1500만원 상당이다. 최다 추천인으로 등록된 1등에게는 먹깨비 상품권 100만원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는 2등부터 4등까지는 각각 10만원, 2만원, 1만원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9월 12일 발표된다.

또한 신규가입자에게는 먹깨비 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포터즈 가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현재 57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남지역 640여 가맹점에서의 할인과, 남도장터 1만원 쿠폰, JN투어 남도숙박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전용 누리집 (<https://namdo2.jeonnam.go.kr/jnsupports/>)과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공모

공공기관 우선 계약·홍보 등 혜택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11일까지 지역서점 보호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 인증에는 신규 서점뿐만 아니라 인증이 만료되는 기존 인증서점 80곳에 대한 재인증도 함께 이뤄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는 서점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인증기간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된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재인증 대상 서점의 경우 12~27일까지, 신규 인증의 경우 7월1~11일까지다. 광주시 누리집 고사·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tumbl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부 회의를 통해 7월 중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청년일자리스테이션 개소식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도영 광주지방고용청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청년 등이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 내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에서 ‘청년의 꿈!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개소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317억 확보

57억 증액…총 1조3천억 발행
여수·무안 특별지원 대상 포함

전라남도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8868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1조3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000억 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모두 26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 원으로 당초 신청보다 57억 원 증액된 총 317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75억 원을 투입,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했었다.

시군에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해 1~4월 총 4245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됐다.

이같은 선제 조치와 국비 확보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국민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등 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청소년 자율공간’ 마련

북구·광산구 이어 복합문화공간 개소
전용 라운지·게임존·북카페 등 갖춰

광주광역시 남구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을 남구 진월동에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자율공간’은 민선 8기 광주시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이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오락 체험, 학습,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은 지난해 개소한 북구 임동, 광산구 비아동에 이은 세 번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 라운지 △노래방 △포토부스 △게임존 △북카페 등을 갖췄다. 특히 야외테라스에는 캠핑장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또래와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광주시는 ‘자율공간’을 조성할 때 청소년들이 공간 기획과 조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